



www.at.or.kr

# 호주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5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5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호주



##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2. 음료류 (인스턴트커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 별 인스턴트커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3. 면류 (건면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 별 건면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4. 주류 (맥주(캔))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 별 맥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6. 소스류 (드레싱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 1) 원산지 별 드레싱류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호주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5월 25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 달러=837.21원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1~5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호주



## 1. 김



## 2. 음료류 (인스턴트커피)



## 3. 면류 (건면류)



## 4. 주류 (맥주(캔))



## 5. 제과류 (비스킷류)



## 6. 소스류 (드레싱류)



※ 호주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5월 25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 달러=837.21원

주류

**수요 증가 ▲** “ 과일 맛 소주 맛있어요! ”

호주에서 한국산 주류만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Korea Liquor 회사의 Mr. John은 당사의 최고 인기 상품을 소주로 꼽았다. 소주의 경우, 최근 한국에서 과일과 소주를 결합한 과일 맛 소주를 출시하고 있어 소주 향을 싫어하거나 소주를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호주 사람들은 사케, 위스키와 같이 도수가 높고 맑은 청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주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 주류 중 가장 높을 것이라 전했다. 담당자는 제품에 담긴 과일의 맛이 소주와 잘 섞여 남녀 노소 누구나 맛있다고 칭찬하는 대표적인 한국 상품 중 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과일 맛 소주]

**가격 하락 ▼** “ 무슨 맛이에요? 막걸리와 맥주의 굴욕 ”

한국 직수입으로 한국산 주류만 취급하는 Korea Liquor 회사의 담당자 Mr. Joh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막걸리와 맥주가 비인기 제품으로 판매율이 또 한 번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라 밝혔다. 호주 소비자들에 따르면 맥주와 막걸리가 현지인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주 찾지 않는 품목이라고 답했다. 막걸리의 주요 소비층은 대부분 현지에서 거주하는 아시아 사람들이며, 가끔 호주의 20 ~ 30대 고객들이 호기심으로 구매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당사에서 시음회를 진행해본 결과, 한국 맥주의 싱거운 맛과 막걸리 고유의 텁텁한 맛이 현지인들에게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어 호주인보다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만 판매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 막걸리]

기타 가공식품

**수요 증가 ▲** “ 호주는 겨울! 겨울에는 국물요리 수요 늘어 ”

호주 브리즈번에 소재한 유명 한인마트인 하나로마트의 Mr. Jeong에 따르면, 이번 달 인기 제품은 CJ사의 두루두루 만두로 소개했다.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호주는 5월부터 늦가을이 지나 겨울이 시작되고 있어 국물 요리, 찜 요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무렵인 현재 호주는 장기간 바람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사람들이 만두를 많이 찾는다고 밝혔다. 라면과 곁들여 먹기도 하고 여러 국물 요리에 활용 가능한 만두가 호주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아 판매율이 높은 제품임을 설명했다. 8월 말 ~ 9월 초까지 이어지는 겨울 내내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CJ社 두루두루 만두]

주류

**수요 감소 ▼ 가격 하락 ▼** " 겨울엔 확연히 줄어드는 알로에 음료 사랑 "

호주 브리즈번 내 7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한인 슈퍼마켓인 하나로마트의 정영도 차장과의 인터뷰 결과,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던 한국산 알로에 음료의 인기가 점차 시들해졌다고 밝혔다.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는 호주가 겨울 시즌에 접어들고 있어 사람들이 시원한 음료를 구매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에 묶음 판매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가격을 낮춰 사람들의 소비를 유인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계절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 및 가격의 하락이기에 겨울이 지속되는 9월까지 판매를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웅진社 가야농장 알로에음료]